



코로나19 확산과 영국의 재택근무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② - 영국

채민석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 런던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20년 3월 20일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전국적인 봉쇄정책을 시행하면서 많은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이후 코로나19 증가세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정부는 경기를 다시 활성화하기 위해 봉쇄정책을 완화하고 8월 초부터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도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은 재택근무를 유지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지난 수 년간 완만히 증가해오던 영국의 재택근무가 코로나19 확산과 봉쇄정책을 계기로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봉쇄기간 중 급증한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생산성과 정신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고, 향후 영국의 재택근무에 대한 전망을 정리해 본다.

■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영국 내 재택근무 현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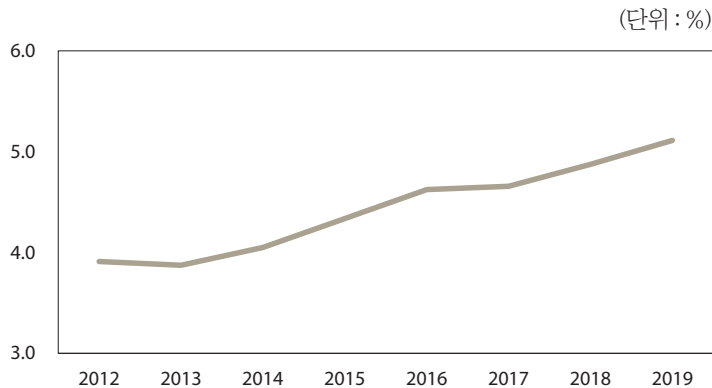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년 동안, 영국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노동자의 비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해 왔다. 영국 통계청의 연간 인구조사(Annual Population Survey) 자료를 활용한 [그림 1]

을 보면, '주된 업무(main job)를 주로 집에서 하는 노동자'를 재택근무자로 정의할 경우 그 비율은 2012년 말 3.9%, 2016년 말 4.6%, 그리고 2019년 말에는 5.1%로 꾸준히 증가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국 노동자들의 재택근무 비율은 산업, 직업 및 나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19년 말 기준 재택근무자 비율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업(14.8%),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2.8%), 부동산업(12.3%),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9%)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 중 재택근무자 비율이 높았고, 예상되는 바와 같이 운수 및 창고업(1.8%), 음식·숙박업(2.1%), 공공 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6%), 교육 서비스업(2.7%) 등에서는 재택근

[그림 1] 영국의 재택근무자 비율 추이(2012~2019년)



주: 주된 업무를 주로 집에서 하는 노동자를 재택근무자로 정의.

자료: 영국 통계청(Annual Population Survey).

1) 이 섹션의 작성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영국 통계청(ONS) 자료들을 참고:

- 'Coronavirus and homeworking in the UK labour market: 2019',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articles/coronavirusandhomeworkingintheuklabourmarket/2019>
- 'Coronavirus and homeworking in the UK: April 2020',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bulletins/coronavirusandhomeworkingintheuk/april2020>
- 'Homeworkers by occupation and industry 2012 to 2019', <https://www.ons.gov.uk/employmentandlabourmarket/peopleinwork/employmentandemployeetypes/adhocs/11512homeworkersbyoccupationandindustry2012to2019>

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직업별로는 관리 및 고위직(10.0%), 준전문가 및 기술직(8.1%) 등 숙련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 단순 노무직(0.5%),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1.2%), 판매 종사자(1.6%) 등 상대적으로 저숙련 노동자가 많은 직업에서는 재택근무 비율이 낮았다. 한편, 나이가 많은 노동자일수록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16~24세 노동자 중에는 1.3%만이 재택근무를 한 반면, 25~39세는 3.3%, 40~59세는 6.0%가 재택근무를 했고, 60세 이상 노동자는 그 비율이 11.5%에 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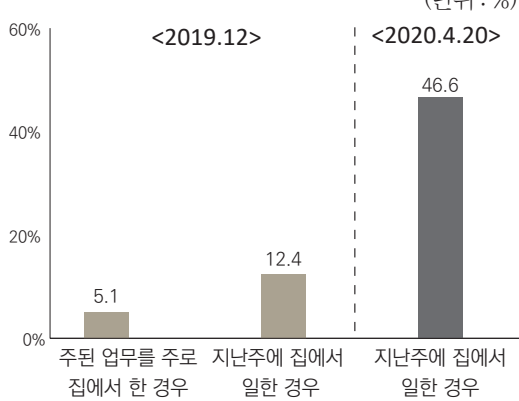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 3월 20일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인 봉쇄정책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갑자기 많은 노동자가 불가피하게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 통계청의 노동시장조사(Labour Market Survey)에 따르면, '지난주(reference week)에 집에서 일한 노동자'를 재택근무자로 정의할 경우²⁾ 봉쇄정책 한 달 후인 2020년 4월 20일 기준 재택근무자의 비율은 46.6%에 달한다. 이를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비교하기 위해 [그림 2]는 앞에서 언급한 2019년 말 재택근무 현황과 관련하여 '주된 업무를 주로 집에서 하는 노동자'의 비율(5.1%)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집에서 일한 노동자'의 비율(12.4%)도 보여주고 있다. 이를 보면 재택근무자의 정의에 따라 정도에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재택근무가 많이 늘어났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86.0%는 그 이유가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이후 설문조사에서 지난주에 재택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노동자를 직업별로 보면 여전히 숙련직 노동자의 재택근무 비율이 높았는데, 특히 전문직(69.6%), 관리 및 고위직(67.3%), 준전문직 및 기술직(63.7%) 등은 그 비율이 60%를 상회했다. 반면,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5.4%), 돌봄·레저 및 기타 서비스직(Caring, leisure and other service occupations, 14.9%), 판매 종사자(15.9%) 등은 봉쇄정책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한편, 연령별로는 25~34세(54.3%) 및 35~49세(51.3%)의 경우 절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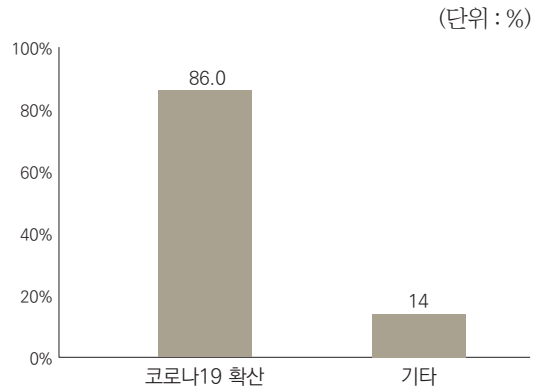
2) '코로나19 확산 이전' 섹션에서의 재택근무자 정의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2]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영국 재택근무자 비율 비교



자료: 영국 통계청(Annual Population Survey, Labour Market Survey).

[그림 3] 코로나19 확산 이후 영국 내 재택근무 이유



자료: 영국 통계청(Annual Population Survey).

이상의 노동자가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16~24세 노동자는 그 비율이 30.2% 수준이었다.

■ 최근 재택근무 급증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망

이하에서는 Felstead & Reuschke(2020)³⁾가 사회경제연구소(Institute for Social and Economic Research)의 「코로나19 관련 사회조사(Understanding Society: Covid-19 Study)」의 설문 결과⁴⁾를 활용하여 진행한 최근 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최근 영국 내 재택근무의 급격한 증가가 노동자의 생산성과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전망에 대해 정리해본다.

3) Felstead, A and Reuschke, D(2020), "Homeworking in the UK: Before and During the 2020 Lockdown", WISERD Report: Wales Institute of Social and Economic Research.

4) 코로나19 관련 사회조사는 2020년 중 총 6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나, Felstead & Reuschke(2020)는 이중 4월 말, 5월 말 및 6월 말에 진행된 총 3회의 설문조사 결과만을 활용하였다.

노동자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이전에 진행된 연구들은 대체로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생산성을 높인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Bloom et al.(2015)은 재택근무가 가능한 250여 명의 콜센터 직원 중 일부를 임의로 선발하여 9개월간 재택근무를 시켰는데, 그 결과 재택근무자들의 생산성이 통제그룹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진 인터뷰에서는 집에서 누릴 수 있는 편안함과 상대적으로 조용한 분위기 등이 생산성 향상의 이유로 언급되었으며, 이들은 직업 만족도가 높고 이직률도 낮았다.⁵⁾

한편,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정책과 같이 비자발적 이유로 재택근무가 급격히 증가한 경우에 관한 연구는 그 증거가 단편적이고, 연구마다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에서⁶⁾ 코로나19로 인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는 생산성이 다소 낮아졌다는 응답이 많았지만,⁷⁾ 캐나다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재택근무 이후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⁸⁾ 한편 최근 영국 공인인력개발연구소(CIPD)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재택근무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고,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응답과 감소했다는 응답의 비율이 비슷했다.⁹⁾ Felstead & Reuschke(2020)가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조사(2020년 6월 기준)에서도 재택근무를 하게 된 노동자¹⁰⁾ 중 40.9%의 응답자가 현재의 생산성이 6개월

5) Bloom, N. Liang, J. and Roberts, J. and Ying, Z. J.(2015), 'Does working from home work? Evidence from a Chinese experi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30(1): 165-218

6) 설문조사는 응답자의 국적을 제한하지 않고 SNS를 통해 진행되었으나, 실제 응답자의 48%가 네덜란드 노동자였다.

7) Rubin, O., Nikolaeva, A., Nello-Deakin, S., and te Brömmelstroet, M.(2020), "What can we learn from the Covid-19 pandemic about how people experience working from home and commuting?", Centre for Urban Studies, University of Amsterdam Working Paper, Amsterdam: Centre for Urban Studies, University of Amsterdam.

8) Saba, T., Cachat-Rosset, G., Marsan, J., Klarsfeld, A., and Carillo, K.(2020), "COVID-19 Crisis Triggers Teleworking: A Global Cure or a Short-term Solution", Montréal: Université de Montréal.

9) CIPD(2020a), "Home working is set to more than double compared to pre-pandemic levels once crisis is over", CIPD Press Release, <https://www.cipd.co.uk/about/media/press/home-working-increases>.

10) 항상(Always), 자주(Often) 혹은 가끔(Sometimes) 집에서 일한다고 응답한 노동자들을 재택근무자

전과 비슷하다고 답했고,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응답과 감소했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28.9% 및 30.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재택근무 빈도에 따라 생산성 변화에 차이가 있었는데, '항상'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생산성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주' 혹은 '가끔' 집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는 생산성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이는 재택근무를 통해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는 노동자가 더 자주 재택근무를 선택하는 일종의 선별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재택근무와 노동자의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기존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재택근무의 증가가 일과 관련된 행복감을 높인다고 보았지만, 그 크기는 재택근무가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재택근무 시간이 증가할수록 한계효과도 점차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Felstead & Reuschke(2020)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의 비자발적이고 급격한 증가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로 봉쇄정책 기간 동안의 정신건강 지수¹¹⁾를 2017~18년과 비교해보면, 3개월간의 봉쇄정책 기간에 항상 집에서 일한 노동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 정신건강 하락폭이 유의미하게 컸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정적인 영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봉쇄정책 시행 1개월 후에는 항상 집에서 일한 노동자의 정신건강 하락폭이 여타 노동자에 비해 매우 컸으나, 3달 후에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저자들은 노동자들이 재택근무에 점차 적응했거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크게 받는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점차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로 정의하였다.

- 11) 사회조사 설문문항 중 집중력, 일상 생활을 즐기는 정도, 불행감 및 우울감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12개 문항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산출한다. 저자들은 이와 같은 정신건강 지수가 '일과 관련된' 정신건강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향후 영국의 재택근무에 대한 전망

Felstead & Reuschke(2020)가 활용한 코로나19 관련 사회조사는 재택근무자에게 ‘향후 코로나19가 진정되어 모든 상황이 정상으로 회복되면 얼마나 자주 재택근무를 하고 싶은지’도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항상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응답자 13.2%, ‘자주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응답자 34.1%, ‘때때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응답자 40.9%) 총 88.2%의 응답자가 어느 정도 이상 재택근무를 계속하고 싶다고 답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재택근무를 해본 적이 거의 없던 재택근무자 중 50%가 앞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도 항상 혹은 자주 재택근무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저자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고 난 이후 기존보다 훨씬 많은 영국 내 노동자들이 재택근무를 선택하리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가디언지」 등은 영국 정부가 8월부터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를 요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8월 말 기준 주요 도시에서 직장에 출근하는 노동자 수는 봉쇄정책 이전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 증가도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¹²⁾

한편, 위 저자들은 향후 재택근무의 증가가 전반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리라 전망했는데 이는 재택근무 시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일수록 재택근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재택근무를 통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노동자 중 향후에도 항상 혹은 자주 재택근무를 원하는 비율이 65.5%에 달한 반면,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6.4%에 불과했다. 따라서 향후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재택근무자 수가 증가하면서 선별효과에 의해 전반적인 생산성도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¹³⁾

12) 「가디언지」는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가 더딘 이유로 ‘도심의 밀집된 사무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알렉스 브래지어(Alex Brasier) 영란은행 금융안정전략 이사(Executive Director for Financial Stability Strategy and Risk)의 발언,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및 대중교통 수용 능력에 대한 우려, 등교 중지 등을 언급했다(The Guardian(2020.9.10), “No rise in workers in UK city centres despite back-to-office plea”,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20/sep/10/no-rise-in-workers-in-uk-city-centres-despite-back-to-office-plea>).

13) 다만, 저자들은 재택근무 증가에 따른 도심지의 수요 감소 등 경제 내 다른 분야에 대한 영향까지 고려한 분석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영국 경제경영연구소(CEBR)는 2020년 3~7월 기간 동안 런던 중심부 사무실 주변의 수요 감소가 23억 파운드(한화 약 3조 4,500억 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 맺음말

최근 재택근무의 확산은 코로나19라는 위기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의 결과물이지만, 동시에 그동안 가능성으로만 논의되거나 일부 분야에서 제한적으로만 도입되던 재택근무를 다양한 분야에서 직접 경험하고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발적 선택 여부, 도입 규모 및 속도, 산업 및 직업별 여건 등에 따라 재택근무의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택근무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앞으로 보다 생산적이고 만족스러운 근로환경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KLI**

(BBC(2020.9.25), "Coronavirus: Working from home 'costs central London £2.3bn'", <https://www.bbc.com/news/uk-england-london-54250965>).